

경제학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에듀윌 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3일 시행
7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 총평

○ 단원별 출제 분포도

구분	단원	내용	문항수
미시경제 (8문항)	경제학의 기초	[계산] 기회비용과 선택	1
	수요공급이론과 응용		
	소비자이론	시점간 자원배분	1
	생산자이론	[계산] 공급곡선 도출	1
	생산물시장이론	[계산] 이윤극대화 [계산] 가격선도모형	2
	요소시장이론/소득분배		
후생경제학과 시장실패		[계산] UPF와 SW 역선택 해결책	2
	미시경제 신영역	경매이론	1
거시경제 (9문항)	국민소득이론	GDP 개념 [계산] 승수	2
	소비 및 투자함수론		
	화폐금융이론	[계산] 화폐수량설	1
	IS-LM이론		
	총수요-총공급 이론		
	재정과 금융정책	통화량 증가 리카도 등가정리 [계산] 테일러 준칙 [계산] 실업률 측정	3
	실업과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2
경제변동 및 경제성장	[계산] 성장회계	1	
국제경제	국제무역이론	관세부과 효과	1
	국제금융이론	[계산] 이자율평가설 구매력평가설	2
합계			20

○ 총평

1. 신유형의 등장으로 인한 난이도 조절

(1) 경매 이론의 새로운 등장

앞으로 7급 경제학은 PSAT를 도입할 예정이라서 그런지 시험범위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과거 시험에 출제된 바가 없지만, 미시경제학에서 다루고 있는 경매이론을 중심으로 한 가격선도모형을 계산문제로 출제했다. 경매는 최근 경제학에서 매우 중시되는 부분으로 과거에 출제된 바가 있으나 그것은 소비자 잉여와 연결시켰기 때문에 사실 경매 문제를 제대로 다룬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에 출제된 경매의 경우에는 영국식 경매, 네덜란드식 경매를 비롯하여 비공개차가경매, 최고가 경매라는 좀더 구체적인 경매 방식과 유형을 묻고 있다. 특히 수입등가정리라는 꽤 깊이 있는 내용까지 터치를 함으로써 경제학 시험 범위가 외연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조짐이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특히 7급 경제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자산가격 설정 모형, 행동경제학, 법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영역까지 조금씩 확대**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수험생 입장에서 준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 시장에는 **많은 좋은 강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2) 가격선도모형 계산문제 등장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연타석 대박을 터트렸다. 가격선도모형은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의 내용에도 나와 있고, 전통적인 미시경제학의 오래된 모형이지만, 실제 시험에서 출제된 바는 없다. 왜냐하면 말(서술)로 문제를 출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다! **바로 계산문제의 증가 추세에 올라타고 등장한 것이다.** 가격선도모형은 미시경제학의 한 분과인 산업조직론의 부분에서 많이 언급되고 연습문제로 출제되기도 하는데, 역시 계산문제 형태이다. **앞으로 가격선도 모형처럼 객관식으로 출제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계산문제의 바람을 타고 불의타성으로 등장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의 추세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니 가격선도모형과 유사한 말로 출제되기는 어렵지만 계산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유심히 관찰해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계산문제의 증가라는 정형화된 사실

최근의 경제학 추세는 계산문제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물론 직접 계산하는 것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경제학의 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에도 앞의 단원별 출제 분포도에서 볼 수 있듯이 **계산문제가 11개나 출제**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출제의 정형화된 사실 중의 하나가 바로 계산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산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극복해야** 한다. 그 많고 어려운 다른 과목의 용어와 연도, 사건을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이면 계산문제 정도는 문제 자체를 암기할 수 있다. 단, 경제학적 내용을 이해해야 실전에서 암기한 계산문제 스타일을 정복할 수 있다.

3. 난이도 있는 변별력 문제는 2개 정도

공무원 경제학은 다른 경제학 시험과는 달리 역시 문항수가 작다는 것이다. 이번에 **경매이론과 가격선도모형이 변별력을 위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기타 문제는 난이도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아마도 효용가능경계와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의 문제와 테일러준칙의 문제에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90점 정도면 고득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수험 대책

1. 기본기를 탄탄하게, 핀셋 공식 암기는 지양

경제학 시험은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기를 탄탄히 해야 한다. 경제학은 비법이나 공식 하나로 핀셋 대비는 할 수 없다. 이제 **“제대로 시대”**가 도래했다.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실전과 가까운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기본이 탄탄하면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이 완성되어야, 이 단계를 넘어 다음 단계로 비약할 수 있는 것이다.

2. 계산문제의 비중 증가에 대비

최근 등장한 계산문제의 증가는 경제학의 표준화된 형태가 되었다. 경제학의 수식과 그래프를 두려워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는 좀 불편한 소식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미 도래한 새로운 출제 패러다임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객관식 교재의 계산문제들만 따로 모아서 반복해서 숙달시킬 필요가 있다. 아마도 강의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따로 계산문제와 더불어 그래프들을 모아서 많은 연습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이끄는 대로 믿고 잘 따라가면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길어지는 문제의 길이와 난이도

경제학의 난이도를 끌어 올리는 주된 요인들 중의 하나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7급과 9급 경제학 문제들은 짧고 단편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장의 길이도 길어지고 있으며, 박스형 선택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빠르게 볼 수 있는 속독의 능력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파편식의 요약정리보다 문장체로 서술되어 있는 교재나 지문이 길게 출제된 여타 기출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풀어볼 필요가 있다.

✓ 혹시 공부하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에듀윌 게시판 혹은 메일(sunkujang@hanmail.net) 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과거의 기출문제 혹은 동영상 해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http://blog.daum.net/ecomania>) 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본원통화량이 불변인 경우,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요인만을 모두 고르면? (단,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은 요구불예금보다 적다)

- ㄱ.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대비 초과지급준비금이 낮아졌다.
- ㄴ. 사람들이 지불수단으로 요구불예금보다 현금을 더 선호 하게 되었다.
- ㄷ. 시중은행이 준수해야 할 요구불예금 대비 법정지급 준비금이 낮아졌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정답] ②
[출제포인트] 통화량 증가 요인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본원통화량이 불변인 채로 유지하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지급준비율을 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과지급준비금과 법정지급준비금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한편 공개시장조작정책에서 국공채를 매입하거나, 재할인율을 인하하는 정책은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량을 증가시켜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ㄴ) 사람들이 지불수단으로 요구불예금보다 현금을 더 선호하게 되면 예금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은행의 통화승수는 작아지게 되어 통화량이 감소하게 된다. 통화승수의 공식은 $\frac{1}{c+(1-c)z} = \frac{k+1}{k+z}$ 이기 때문에 현금-통화비율인 c 와 현금-예금비율인 k 가 증가하게 되면 승수는 작아진다.

2. 직장인 K는 거주할 아파트를 결정할 때 직장까지 월별 통근시간의 기회비용과 아파트 월별 임대료만을 고려한다. 통근시간과 임대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K의 최적 선택은? (단, K의 통근 1시간당 기회 비용은 1만 원이다)

거주 아파트	월별 통근시간 (단위: 시간)	월별 임대료 (단위: 만 원)
A	10	150
B	15	135
C	20	125
D	30	120

- ① A 아파트
- ② B 아파트
- ③ C 아파트
- ④ D 아파트

[정답] ③

[출제포인트] 비용극소화 선택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경제학에서 선택의 문제는 최적화의 문제로 풀수 있다. 최적화(optimization)란 좋은 것은 극대화(maximization)하고 나쁜 것은 극소화(minimization)하는 것이다.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은 아파트의 선택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고르는 것이다. 이때 아파트의 월별 임대료뿐만 아니라, 직장까지 통별 통근시간을 비용으로 고려해서 화폐가치로 환산해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에서 월별 통근 1시간당 기회비용이 1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월별 총비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A) 160만원(=10+150)
- (B) 150만원(=15+135)
- (C) 145만원(=20+125)
- (D) 150만원(=30+120)

따라서 월별 통근시간을 고려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아파트는 (C)이다.

3.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자국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들여온 재화의 양
- ② 자국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여 외국 지사에 중간재로 보낸 재화의 양
- ③ 외국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여 제3국에 수출한 재화의 양
- ④ 외국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양

[정답] ①

[출제포인트] GDP 구성내역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GDP는 일정기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모두 합해 화폐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 고려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른다.

①은 자국기업이 생산한 것일지라도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것이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완전경쟁시장에서 활동하는 A기업의 고정비용인 사무실 임대료가 작년보다 30% 상승했다. 단기균형에서 A기업이 제품을 계속 생산하기로 했다면 전년 대비 올해의 생산량은? (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다)

- ① 30% 감축
- ② 30% 보다 적게 감축
- ③ 30% 보다 많이 감축
- ④ 전년과 동일

[정답] ④

[출제포인트] 고정비용 상승시 최적 생산량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기업의 최적 생산량은 $MR=MC$ 에서 결정된다. 이때 MC 는 가변비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고정비용인 사무실의 임대료가 30% 상승하는 경우에는 가변비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한계비용은 그대로 불변이 되어 최적생산량도 변함이 없게 된다.

간략하게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pi = TR - TVC - TFC_0 \quad \pi = TR - TVC - TFC_1 \text{로 } TFC \text{가 증가했더라도}$$

가변비용은 TVC 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frac{\Delta TC}{\Delta Q} = \frac{\Delta TVC}{\Delta Q} = MC$ 로 한계비용은 불변이 된다. 따라서 $MR=MC$ 는 변함이 없고 최적 생산량도 변함이 없다.

5. 다음은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된 케인즈 모형이다. 이때 투자 지출은 120으로, 정부지출은 220으로, 조세수입은 250으로 각각 증가할 경우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는?

$$\text{소비합수: } C = 0.75(Y - T) + 200$$

$$\text{투자지출: } I = 100$$

$$\text{정부지출: } G = 200$$

$$\text{조세수입: } T = 200$$

- ① 10 감소
- ② 10 증가
- ③ 20 감소
- ④ 20 증가

[정답] ②

[출제포인트] 승수 공식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승수를 구하는 공식을 활용한 문제이다. 문제에서 투자지출과 정부지출은 승수가 $\frac{1}{1-MPC} = \frac{1}{1-0.75} = 4$ 로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지출을 20만큼 증가시키고, 정부지출도 20만큼 증가시키는 경우 40의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므로 국민소득은 160만큼 증가한다.

이와 더불어 조세수입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승수는

$$\text{반대로 작용하여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조세승수는 } \frac{-MPC}{1-MPC} = \frac{-0.75}{1-0.75} = -3 \text{이므로}$$

조세가 50만큼 증가하는 경우에 국민소득은 150만큼 감소하게 된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보면 $\Delta I = \Delta G = 20$, $\Delta T = 50$ 이다.

따라서 국민소득의 증가크기는 다음과 같이 된다.

$$\Delta Y = \frac{1}{1-0.75} \times \Delta I + \frac{1}{1-0.75} \times \Delta G + \frac{-0.75}{1-0.75} \times \Delta T = 10$$

6. 갑과 을이 150만 원을 각각 x 와 y 로 나누어 가질 때, 갑의 효용 함수는 $u(x) = \sqrt{x}$, 을의 효용 함수는 $u(y) = 2\sqrt{y}$ 이다. 이때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과 공리주의적 배분은? (단, 공리주의적 배분은 갑과 을의 효용의 단순 합을 극대화하는 배분이며 단위는 만 원이다)

- | | |
|-----------------------------------|---------------------|
|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 | 공리주의적 배분 |
| ① $(x + y = 150)$ 을 만족하는 모든 배분이다. | $(x = 75, y = 75)$ |
| ② $(x = 30, y = 120)$ 의 배분이 유일하다. | $(x = 75, y = 75)$ |
| ③ $(x = 75, y = 75)$ 의 배분이 유일하다. | $(x = 30, y = 120)$ |
| ④ $(x + y = 150)$ 을 만족하는 모든 배분이다. | $(x = 30, y = 120)$ |

[정답] ④
[출제포인트] 효용가능경계와 사회후생함수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목적식) $Max SW = u(x) + u(y) = \sqrt{x} + 2\sqrt{y}$
 (제약식) $150 = x + y$
 제약식이 바로 효용가능경계를 의미한다. 효용가능경계선상의 모든 점들은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바로 $150 = x + y$ 이 된다. 한편 문제에서 주어진 사회후생함수는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로 두 사람의 효용을 합해서 나타낸다. 이때 최적 선택은 두 사람의 한계효용이 동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갑과 을의 한계효용 $MU_{갑} = \frac{1}{2} \frac{1}{\sqrt{x}}, MU_{을} = \frac{1}{\sqrt{y}}$ 가 되어 $\frac{1}{2} \frac{1}{\sqrt{x}} = \frac{1}{\sqrt{y}}$ 이므로 $y = 4x$ 가 된다. 이를 효용가능경계인 제약식 $150 = x + y$ 에 대입하면 $x = 30, y = 120$ 을 얻을 수 있다.

7. 리카디안 등가(Ricardian Equivalence)는 정부가 부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조세삭감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
|---|
| ㄱ. 소비자들은 합리적이지 못한 근시안적 단견을 갖고 있다.
ㄴ. 소비자들은 자금을 조달할 때 차용계약이 있다.
ㄷ. 소비자들은 미래에 부과되는 조세를 장래세대가 아닌 자기세대가 부담할 것으로 기대한다.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①
[출제포인트] 리카디안 등가정리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리카디안 등가정리는 새고전학파의 주장으로 사람들이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한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우에 정부지출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조세대신 국채(부채)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똑똑해서 국채를 미래의 조세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 낼 것을 대비하여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리카디안 등가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과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리카디안 등가정리는 이론상 엄밀성이 강점이나 현실에서 과연 성립할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새케인지안은 리카디안 등가정리가 현실에서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재정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ㄱ)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시각(myopia)을 지니고 있다면 국채를 미래의 조세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어 조세를 국채로 대체해서 정부지출에 사용한다면 사람들의 소비는 증가할 수 있게 된다.
 (ㄴ) 소비자들이 금융시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차입의 제약에 빠지는 유동성제한(차입 제약, liquidity trap)에 직면하는 경우에는 리카디안 등가정리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ㄷ)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국채를 미래의 조세로 인식해서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키는 선택을 한다. 따라서 리카디안 등가정리가 성립하게 되면 현재 소비 감소로 국채의 부담은 현재세대가 부담한다. 이렇게 국채의 부담을 현재세대가 부담하게 되면 리카디안 등가정리가 성립한다는 말이 되고, 미래세대가 부담을 하게 되면 리카디안 등가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8. 단기적으로 100개의 기업이 존재하는 완전경쟁시장이 있다. 모든 기업은 동일한 총비용함수 $TC(q) = q^2$ 을 가진다고 할 때, 시장 공급함수(Q)는? (단, p 는 가격이고 q 는 개별기업의 공급량이며, 생산요소의 가격은 불변이다)

- ① $Q = p/2$
- ② $Q = p/200$
- ③ $Q = 50p$
- ④ $Q = 100p$

[정답] ③

[출제포인트] 공급곡선 도출 [난이도] ★★ [중요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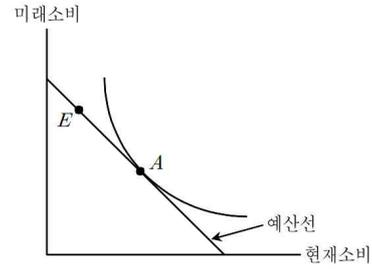
[해설]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은 평균가변비용(AVC)을 상회하는 한계비용(MC)곡선이다. 따라서 먼저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을 구하면 $MC = 2q$ 가 된다. (원래는 $AVC = q$ 가 되어 $AVC < MC$ 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하는데 객관식에서는 그러한 과정은 대부분 생략할 수 있도록 문제가 주어진다).

문제에서는 단기적으로 기업이 100개 존재하고 있고, 이를 고려한 시장공급곡선을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은 수평으로 더해야 한다. 수평으로 더하기 위해서는 q 로 정리해야 한다. $q = \frac{1}{2}MC$ 이므로 시장공급곡선은

$Q = \sum q = 100 \times \frac{1}{2}MC = 50MC$ 가 된다. 공급곡선을 나타낼 때는 P, Q 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완전경쟁시장이므로 한계비용가격설정을 고려해 $P = MC$ 가 되므로 시장공급곡선은 $Q = 50MC = 50p$ 가 된다.

9. 다음은 두 기간에 걸친 어느 소비자의 균형조건을 보여준다. 이 소비자의 소득 부존점은 E 이고 효용극대화 균형점은 A 이며, 이 경제의 실질이자율은 r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원점에 불룩한 곡선은 무차별곡선이다)



- ① 실질이자율(r)이 하락하면, 이 소비자의 효용은 감소한다.
- ②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이 소비자는 차입자가 될 것이다.
- ③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인 경우, 현재소득이 증가 하면 소비평준화(Consumption smoothing) 현상이 나타난다.
- ④ 유동성 제약이 있다면, 이 소비자의 경우 한계대체율은 $1+r$ 보다 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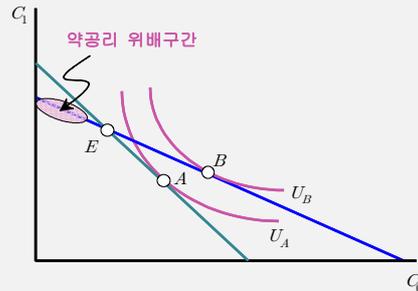
[정답] ①

[출제포인트] 시공간 자원배분 [난이도] ★★ [중요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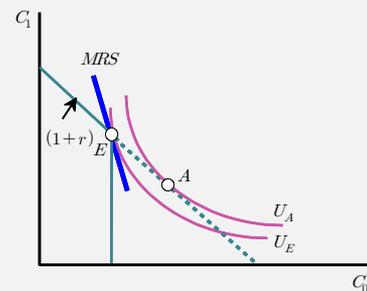
[해설]

현재 초기 부존점(endowment)보다 우측에서 효용극대화를 달성하게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는 차입자이다.

①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이때 무차별곡선을 그려보면 효용은 증가한다. 그래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부존점(E)의 좌측에서는 선택할 수 없게 된다.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열등한 영역을 선택하게 되는 셈이므로 약공리를 위배한다.



- ② 효용극대화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E점보다는 우측에 무차별곡선이 위치해야 한다. 따라서 효용을 증가하면서 차입자의 상태는 유지하게 된다.
- ③ 현재소득이 증가하면 예산선은 밖으로 평행이동하게 된다. 이때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정상재이므로 현재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증가하게 된다.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소비까지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소비의 평준화(smoothing, 평탄화)라고 한다. 하루에 밥을 3끼 먹는 경우에 어차피 먹을 것이라면 아침에 몽땅 3끼를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서 한 끼씩 먹는 것이 소비를 평준화시키면서 효용을 더 높이는 선택이 된다.
- ④ 유동성 제약이 존재한다는 말은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데 잘 안 해준다는 것이다. 안 해준다는 말은 직관적으로 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계대체율이 $(1+r)$ 과 동일한 수준에서 효용극대화를 이루고 있다면 차입제약으로 인해서 효용극대화 조건이 깨지게 된다. 이때는 한계대체율이 $(1+r)$ 보다 더 크게 된다.



10.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은 테일러 준칙(Taylor rule)에 따라서 명목 이자율을 결정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i_t = \pi_t + \rho + \alpha(\pi_t - \pi^*) + \beta(u_n - u_t)$$

(단, i_t 는 t 기의 명목이자율, π_t 는 t 기의 인플레이션율, ρ 는 자연율 수준의 실질이자율, π^* 는 목표인플레이션율, u_n 은 자연실업률, u_t 는 t 기의 실업률이며, α 와 β 는 1보다 작은 양의 상수라고 가정하자)

- ㄱ. t 기의 인플레이션율이 1%p 증가하면, 중앙은행은 t 기의 명목이자율을 $(1+\alpha)\%p$ 올려야 한다.
- ㄴ. t 기의 실업률이 1%p 증가하면, 중앙은행은 t 기의 명목이자율을 1%p 낮춰야 한다.
- ㄷ. t 기의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인플레이션율과 같고 t 기의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같으면, t 기의 실질이자율은 ρ 와 같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정답] ③
[출제포인트] 테일러 준칙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 (ㄱ) 인플레이션율이 1%p 증가하게 되면 $\Delta i_t = \Delta \pi_t + \rho + \alpha(\Delta \pi_t - \pi^*) + \beta(u_n - u_t)$ 가 되어 명목이자율은 $1\%p + \alpha\%p$ 증가한다.
- (ㄴ) 실업률이 1%p 증가하면 $\Delta i_t = \pi_t + \rho + \alpha(\pi_t - \pi^*) + \beta(u_n - \Delta u_t)$ 이므로 명목이자율은 $\beta\%p$ 만큼 감소해야 한다.
- (ㄷ) $\pi_t = \pi^*, u_n = u_t$ 이므로 $i_t = \pi_t + \rho$ 가 된다. 이때 $i_t - \pi_t$ 는 실질이자율을 의미하는데, $i_t - \pi_t = \rho$ 가 성립한다.

11. A국가의 생산가능인구는 1,600만 명이고 실업자가 100만 명일 때, 경제활동참가율이 75%라면 실업률은? (단,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

- ① 6.25 %
- ② 8.33 %
- ③ 9.10 %
- ④ 18.75 %

[정답] ②
[출제포인트] 실업률 측정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반영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	U=100
N	

생산가능 인구 = $N + E + U = 1,600$
 경제활동참가율 = $\frac{E+U}{N+E+U} \times 100\% = \frac{E+100}{1,600} \times 100\% = 75\%$
 따라서 $E = 1,200$ 이다.
 실업률 = $\frac{U}{E+U} \times 100\% = \frac{100}{1,200+100} \times 100\% = 8.33\%$

12. 자유무역을 하는 소규모 경제의 A국이 X재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부과 이후의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관세부과 이후에도 수입은 계속된다. 또한 A국의 X재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는 각각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적용된다)

- ㄱ. A국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정부의 관세수입이 발생한다.
 ㄴ. A국의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ㄷ. A국에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②
[출제포인트]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관세부과의 효과는 소국인 경우와 대국인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보아야 한다. 문제에서는 개방경제하에서 국제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소국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소비자잉여	$-(A+B+C+D)$	소비자잉여	$-(A+B+C+D)$
생산자잉여	A	생산자잉여	A
정부재정수입	C	정부재정수입	C+E
총잉여	$-(B+D)$	총잉여	$E-(B+D)$

(ㄱ) 관세를 부과하면 생산량은 증가하고 소비량은 감소한다. 그리고 정부의 관세수입은 증가한다.
 (ㄴ) 과세의 부과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그러나 소비량은 감소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ㄷ) 관세의 부과로 총잉여의 감소인 $-(B+D)$ 만큼의 순손실이 발생한다.

13. 역선택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옳은 것은?

- ① 교통사고 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
 ② 피고용인의 급여에 성과급적 요소 도입
 ③ 감염병 예방주사 무료 접종
 ④ 의료보험 가입 시 신체검사를 통한 의료보험료 차등화

[정답] ④
[출제포인트] 역선택 해결책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역선택은 비대칭정보하의 숨겨진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생긴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① 교통사고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의 문제이므로 사후적인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② 급여에 대한 성과급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도 성과의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사후적인 문제이다.
 ③ 감염병 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하는 것은 얼핏 사전적으로 감염병을 해결하는 조치로 볼 수도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모두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 정부가 감염병 예방주사를 무표로 접종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무료일지라도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문제를 해결한다고 볼 수도 없다. 추가적으로 감염병 예방주사의 경우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양의 외부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④번이 없다면 정답지 후보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객관식의 특성 상 가장 타당한 것을 골라야하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아쉽게 배제해야 한다.
 ④ 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전에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14. 경매이론(Auction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공개 차가 경매(Second price sealed bid auction)에서는 구매자가 자신이 평가하는 가치보다 낮게 입찰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 ② 영국식 경매(English auction)의 입찰전략은 비공개 차가 경매의 입찰전략보다는 비공개 최고가 경매(First price sealed bid auction)의 입찰전략과 더 비슷하다.
- ③ 네덜란드식 경매(Dutch auction)는 입찰자가 경매를 멈출 때까지 가격을 높이는 공개 호가식 경매(Open outcry auction)이다.
- ④ 수입등가정리(Revenue equivalence theorem)는 일정한 가정 하에서 영국식 경매, 네덜란드식 경매, 비공개 최고가 경매, 비공개 차가 경매의 판매자 기대수입이 모두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④
[출제포인트] 경매의 유형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경매(auction)란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부르는 값에 기초해서 자원이 어떻게 배분될지를 정하는 것으로 가격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명백한 규칙들을 갖춘 시장을 말한다. 경매는 어떤 상품이 표준적인 가치(standard value)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그날 아침에 잡은 고등어의 가격은 그 당시의 특정한 수급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경매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호가식 경매(open-outcry bidding, 공개경매)방식 : 영국식 경매, 네덜란드식 경매
 → 예술품 경매에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일반적인 형태
- 입찰제(sealed bid) 방식 : 최고가격입찰제, 비공개차가경매(제2가격입찰제, 비크리 경매)
 → 각 경매 참가자들이 자신이 낼 용의가 있는 금액을 봉합된 상태로 제출해 다른 경매 참가자들이 경매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에 참여

① 비공개차가경매(second-price sealed bid auction, 제2가격입찰제)는 다른 모든 점은 최고가격입찰제와 동일하지만 낙찰자 자신이 써낸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다음으로 높게 써낸 금액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비공개차가경매에서는 자신의 평가액을 진실하게 써내는 것이 우월전략이 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써낸 금액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가에 영향을 줄 뿐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써낸 평가액보다 더 낮게 써내 봐야 이길 확률만 하락할 뿐 이기게 된 후에 지불하는 금액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평가액보다 더 높게 써낸 경우에는 경매에서 승자가 된 후에 보수가 음(-)이 될 위험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액을 진실하게 써내는 것이 우월전략이 된다.

참고로 비공개차가경매는 경매에서 낙찰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승자의 불행(winner's curse)이라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비공개차가경매를 도입한 이유는 사람들이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고 더 낮은 가격을 써내려는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② 영국식 경매(English auction)는 부르는 가격을 계속 올려가다가 더 이상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 가격에서 거래가 종료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경매 방식이다. 동등수입정리에 따르면 영국식 경매는 비공개차가 경매(제2가격입찰제)와 똑같은 결과인 똑같은 가격과 배분상태를 가져온다는 정리가 확립되어 있다.

③ 네덜란드식 경매(Dutch auction)는 영국식 경매와 반대로 경매인이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기 시작해서 살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가격을 점차 내려가는 방식이다. 짧은 시간 안에 경매가 끝날 수 있는데, 생선(이스라엘)이나 튜립(네덜란드)처럼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경우 이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④ 수입등가정리(동등수입정리, revenue equivalence theorem)이란 일련의 가정이 충족된 상황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4가지 경매 방식인 영국식 경매와 네덜란드식 경매, 최고가격입찰제, 비공개차가경매가 모두 동일한 경매 수입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경매대상의 가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독립적이다.
-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위험 중립적이다.
-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동질적이다.
- 경매에 이긴 사람이 지불하는 금액은 사람들이 부른 금액만의 함수이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4가지 경매 방식이 평균적으로 동일한 경매 수입을 가져다준다는 것이지만 언제나 똑같은 경매 수입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5. 다음 자료의 내용과 부합하는, A 씨의 1년 후 예상 환율은?

A 씨는 은행에서 운영 자금 100만 원을 1년간 빌리기로 했다. 원화로 대출받으면 1년 동안의 대출 금리가 21 %인 반면, 동일한 금액을 엔화로 대출받으면 대출 금리는 10 %이지만 대출금은 반드시 엔화로 상환해야 한다. 현재 원화와 엔화 사이의 환율은 100엔당 1,000원이고, A 씨는 두 대출 조건이 같다고 생각한다.

- ① 1,000원/100엔
- ② 1,100원/100엔
- ③ 1,200원/100엔
- ④ 1,250원/100엔

[정답] ②
[출제포인트] 이자율 평가설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이자율 평가설은 명목이자율과 환율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r = r_f + \frac{e_{t+1}^e - e_t}{e_t}$$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0.21 = 0.1 + \frac{e_{t+1}^e - 1,000}{1,000}$$

따라서 $e_{t+1}^e = 1,100$ 이 된다.

16. 다음 제시문의 ㉠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구매력평가이론(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은 양국의 화폐 1단위의 구매력이 같도록 환율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구매력평가이론에 따르면 양국 통화의 (㉠)은 양국의 (㉣)에 따라 결정되며, 구매력평가이론이 성립하면 (㉡)은 불변이다.

- | | | |
|--------|------|------|
| ㉠ | ㉣ | ㉡ |
| ① 실질환율 | 경상수지 | 명목환율 |
| ② 명목환율 | 경상수지 | 실질환율 |
| ③ 명목환율 | 물가수지 | 실질환율 |
| ④ 실질환율 | 물가수지 | 명목환율 |

[정답] ③

[출제포인트] 구매력평가설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구매력평가설은 양국의 물가수준에 따라서 명목환율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기본적인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 = eP_f$$

여기서 P 는 자국의 물가수준이고 P_f 는 다른 나라의 물가수준을 말한다. 이때 e 가 명목환율이다. 실질환율은 $E = \frac{eP_f}{P}$ 이므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게 되면 $P = eP_f$ 가 되면 1이 되어 불변이 된다.

17. 큰 기업인 A와 다수의 작은 기업으로 구성된 시장이 있다. 작은 기업들의 공급함수를 모두 합하면 $S(p) = 200 + p$, 시장의 수요 곡선은 $D(p) = 400 - p$, A의 비용함수는 $c(y) = 20y$ 이다. 이때 A의 잔여수요함수($D_A(p)$)와 균형가격(p)은? (단, y 는 A의 생산량이다)

- | | |
|-----------------------|----------|
| 잔여수요함수 | 균형가격 |
| ① $D_A(p) = 400 - 2p$ | $p = 50$ |
| ② $D_A(p) = 200 - 2p$ | $p = 60$ |
| ③ $D_A(p) = 200 - 2p$ | $p = 50$ |
| ④ $D_A(p) = 400 - 2p$ | $p = 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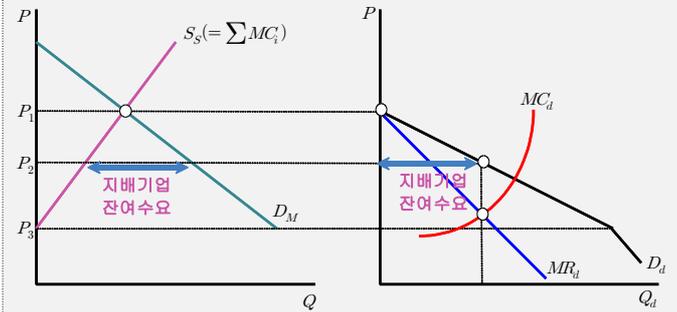
[정답] ②

[출제포인트] 가격선도모형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가격선도모형(price leadership model)은 과점기업들이 암묵적인 상호협조 관계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모형이다. 한 기업이 가격을 선도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를 따르는 형태로 암묵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가격선도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지배적인 기업(dominant firm)이 가격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모형에서 지배적 기업은 군소기업들이 각 가격에서 팔려고 하는 양만큼을 모두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가정한다. 즉, 지배적 기업은 군소기업들이 팔 수 있는 만큼 모두 팔게 한 후에 시장수요의 나머지 부분만을 채우면서 이윤극대화를 시도한다고 가정한다.



■ 잔여수요곡선의 도출

시장수요곡선에서 군소기업 전체의 공급곡선을 수평방향으로 뺀 것을 자신의 수요곡선으로 간주하게 된다.

어떤 과점시장의 시장수요곡선(D_M)과 군소기업 전체의 공급곡선(S_S)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주어져 있다고 하자. 이 모형에서 군소기업들은 각 가격에서 팔려고 하는 양만큼을 모두 팔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마치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기업과 같이 가격 수용자가 된다. 따라서 각 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이 그 기업의 공급곡선이 되고, S_S 곡선은 이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을 수평의 합으로 더해 구해진 것이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곡선에 $\sum MC$ 라는 설명을 추가한 것이다.

전체 시장의 수요곡선(D_M)에서 이 S_S 를 수평으로 빼면 군소기업이 팔고 난 나머지 시장수요만을 채우는 지배적 기업의 수요곡선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래프에서 D_d 곡선으로 나타낸 것인데, 이는 굴절된 형태로 나타난다. P_3 보다 낮은 가격에서는 군소기업들이 공급하려는 양이 0이 되어 시장수요곡선이 그대로 지배적 기업의 수요곡선이 된다.

문제에서 잔여수요곡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D_d = D(p) - S(p) = (400 - p) - (200 + p) = 200 - 2p$$

■ 지배적 기업의 한계수입곡선 도출

지배적 기업의 수요곡선은 $D_d = 200 - 2p$ 에서 이를 p 로 나타내면 $p = 100 - \frac{1}{2}Q_d$ 가 된다.

에 상응하는 지배적 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은 MR_d 가 된다.

앞에서 구한 잔여수요곡선을 통해서 한계수입곡선을 구하면 $MR_d = 100 - Q_d$ 이다.

■ 지배적 기업의 이윤극대화

지배적 기업의 이윤은 한계수입곡선인 MR_d 가 한계비용곡선인 MC 와 교차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문제에서 $c(y) = 20y$ 이므로 $MC = 20$ 이 된다. 따라서 $MR_d = 100 - Q_d = MC = 20$ 에서 생산량은 80이 되고, 이때 잔여수요곡선 상에 대응하는 가격은 60이 된다.

18. 어느 경제의 총생산함수는 $Y = AL^{\frac{1}{3}}K^{\frac{2}{3}}$ 이다. 실질 GDP 증가율이 5%, 노동증가율이 3%, 자본증가율이 3%라면 솔로우 잔차(Solow residual)는? (단, Y는 실질 GDP, A는 기술수준,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 ① 2 %
- ② 5 %
- ③ 6 %
- ④ 12 %

[정답] ①

[출제포인트] 성장회계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란 경제성장의 요인을 분해해서 개별 생산요소의 기여도로 나타낸 것이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frac{\Delta Y}{Y} = \frac{\Delta A}{A} + \frac{1}{3} \frac{\Delta L}{L} + \frac{2}{3} \frac{\Delta K}{K}$$

따라서 $\frac{\Delta Y}{Y} = 5\%$, $\frac{\Delta L}{L} = 3\%$, $\frac{\Delta K}{K} = 3\%$ 이므로 대입하면

$$5\% = \frac{\Delta A}{A} + \frac{1}{3}(3\%) + \frac{2}{3}(3\%) \text{가 되어 } \frac{\Delta A}{A} = 2\% \text{가 된다.}$$

19. A점에서 장기 균형을 이루고 있는 AD-AS 모형이 있다. 오일쇼크와 같은 음(-)의 공급충격이 발생하여 단기 AS곡선이 이동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기균형점에서 물가수준은 A점보다 높다.
- ② A점으로 되돌아오는 방법 중 하나는 임금의 하락이다.
- ③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면, A점의 총생산량 수준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 ④ 정부지출을 늘리면 A점의 물가수준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정답] ④

[출제포인트] AD-AS 모형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① 오일쇼크와 같은 음(-)의 공급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단기 AS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단기균형점에서는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이와 같이 음(-)의 공급 충격으로 인한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고 한다.

②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방법은 바로 AS곡선을 다시 하방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임금 하락이다.

③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AD곡선이 우측이동하게 되어 A점의 생산량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물가 수준이 더 높이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에서는 총수요관리정책으로는 물가와 국민소득 모두 잡을 수 없게 된다.

④ 정부지출을 늘리게 되면 원래의 물가수준으로 되돌아올 수 없고, AD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물가수준은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20. A국가의 통화량이 5,000억 원, 명목 GDP가 10조 원, 실질 GDP가 5조 원이라면 화폐수량설이 성립하는 A국가의 화폐유통속도는?

- ① 10
- ② 15
- ③ 20
- ④ 25

[정답] ③

[출제포인트] 교환방정식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에 기반 한 교환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V = PY$$

문제에서는 $M=5,000$ 억원, $PY=10$ 조원, $Y=5$ 조원이라고 주어져 있다.

따라서 $V=20$ 이 된다.